

獨逸의 職業學校 教育制度

獨 Hoechst 社 責任技士 金 永 祥

독일의 직업학교 교육제도

독일의 기술교육제도는 한국의 교육제도와 전혀 다르며 균일한 계단적 상승이 아니라 택하려는 직업분야와 각자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린다는 기본 방침에서 세워졌으며 각 교육과정을 상호 간 비교하여 장단점을 따질수는 없으며 또한 한국교육제도와 비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독일의 문교정책은 각주지방 행정권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 주 지방정부(총 11개주 지방 정부가 있음)는 각각 문교부를 갖고있되 중앙정부에는 문교부가 없으며 다만 “과학연구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도 각주마다 다소 상이한데 기본 방침에는 별 큰 차이가 없다.

문교정책은 각 주 정부 선거때마다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현 기술교육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에는 만6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입학이 되며 재래식 학교제에 따르면 국민학교에 머물러 있을 애들은 총 9년동안 국민학교 교육을 받고 중급학교에 가는 애들은 4년동안 국민학교에서 일반적 교육을 받은 다음 따로 설치되어 있는 중급학교(Real-schule)로 진학하며 종합 10년간의 교육을 받는다. 고급학교(Gymnasium)에 진학할 학생들은 4년간의 일반적 국민학교 교육을 공동으로 받은 다음 고급학교에서 9년동안(종합 13년간) 고등교육을 받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4년후 국민학교에 남은 애들이 중급학교로 옮긴다든가 또는 중급학교 학생들이 고급학교로 옮기는

점은 거의 불가능하며 교육평등의 기회를 확장하는 의미로 수개 주정부에서는 수년이래 종합학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년간의 공동국민학교 교육을 받은 후 2년동안 장려 선택과정을 거쳐 중급과 고급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9년제 국민학교 졸업생은 연령세 18세 될때까지 3년간 직업학교(정규제와 시간제 학교)로 가게되며 이 사이에 실제 경험에 위주한 교육을 받아 졸업후 곧 숙련공으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직업학교 졸업후 1년동안 어느 공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다음 기술학교(정규 2년, 야간 4년)에서 실제와 이론을 공부하고 국가시험에 합격되면 기술자로서(technician) 진출할 수 있으며 반면 직업학교 졸업 후 최소 5년간의 직장경험을 쌓은 후 일년간 직장(職長, forman)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상공회의소 시행 시험에 합격하면 직장으로 채용될 수 있다. 직장학교 졸업후 기사가 되고 싶으면 고급직업학교(정규 1.5년, 야간 3년간)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이 되면 engineer school에 입학하여 3년간의 철저한 공부를 끝마치 후 졸업시험을 거쳐 engineer가 될 수 있다. Engineer school을 우수 성적(평균 90점 이상)으로 졸업한 자는 공과대학 전문과에 입학할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과대학에서 평균 5~6년 동안 공부하고 디푸름 시험에 합격되면 “Diplom”—Engineer(석사와 비교할 수 있음)로서 활약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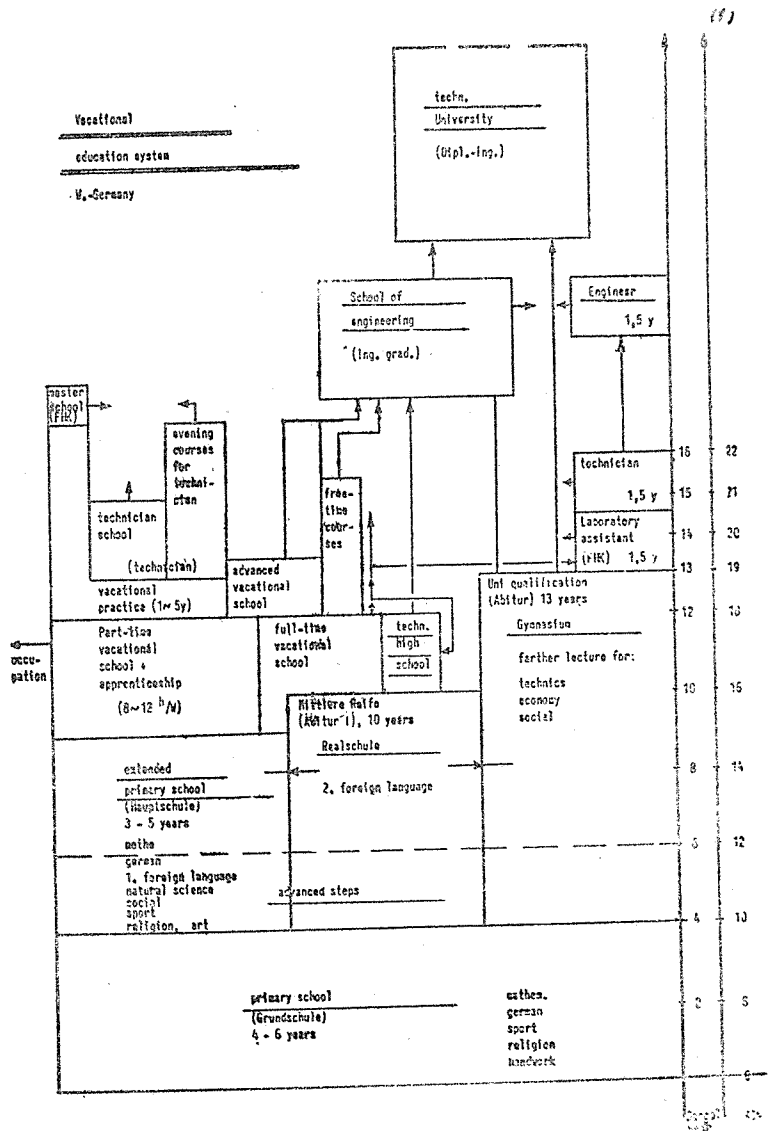
중급학교(Real-Schule) 졸업자는 직업학교를 단축하여(약 2년간) 끝마칠 수 있으며 그후는 9년제 국민학교 졸업자가 직업학교(3년)후 갈

수 있는 길을 갈수 있다. 중급학교 졸업자로서 곧 engineer school에 가고 싶은 자는 2년제의 기술고등과정을 거쳐 입학자격을 받으면 engineer school로 진학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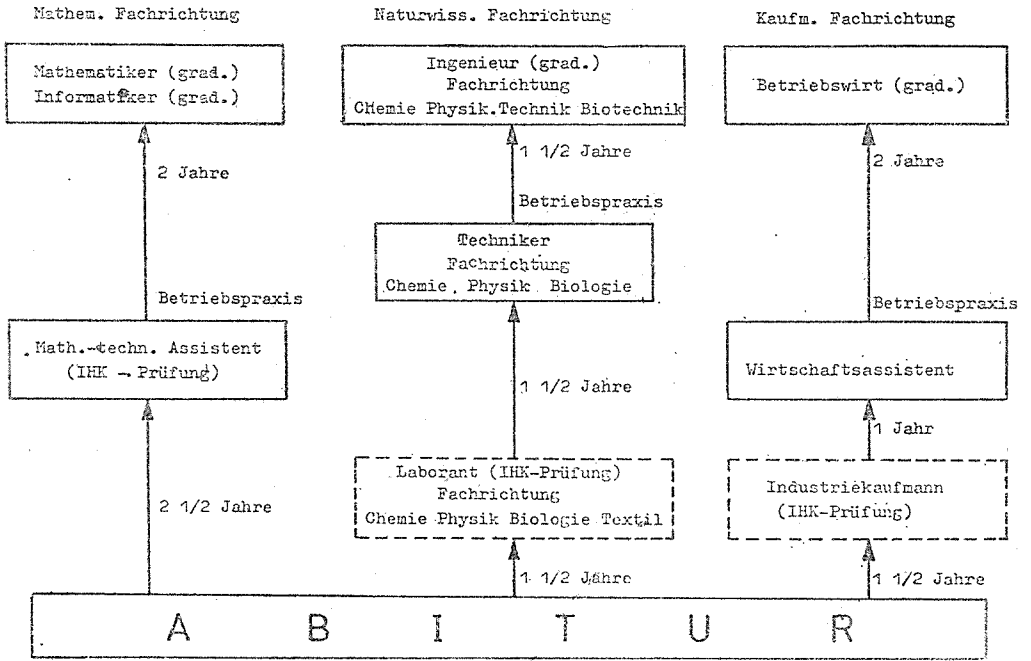
고급학교(Gymnasium) 졸업자는 공과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받게 되며 반면 기사학교(engineer school)에도 직접 입학할 수 있다. 공과대학이나 engineer school에서는 1년 이상의 실습을 가져야 하며 실습경험이 없는 자는 방학동안을 이용하여 소요된 실습을 자기선택으로 공장에서 습득하여야 한다. 반면 고급학교 졸업자로서 빨리 직업을 가지려 하는자 또는 직업학교 졸업생으로서 실험실 계통으로 갈려는 자는 1년반 동안의 과정을 거쳐 물리 화학, 생물등의 실험실 조수가 될 수 있고(상공회의소 주최 시험합격자) 그후 나아가서 기술자가 되고 싶으면 1년반의 과정을 받고 국가시험 합격후 technician이 될 수 있다. 또한 그후 야심이 생겨 기사가 되고 싶으면 1년반 동안의 과정을 받고 시험 합격 후 engineer가 될 수 있다.

특수분야에 있어서는 기술학교부터 시작하여 숙련공, 실험실 조수, 직장(職長), 기술자, 기사까지 시설을 갖춘 큰 회사에서 육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헥스트" 주식회사에서는 40여 분야의 직업(전문공부터 기사까지)교육을 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정규 기술교육과 약 2,000명의 성인보충교육(회사내 종업원들중 보충교육을 요구하는자)을 하고 있다.

특히 정규기술학교(회사내)에 다니는 학생들은 회사 기술교육 보조금(장학금)으로 매월
 제 1년도에 (324 DM) 약 65,000원
 제 2년도에 (378 DM) 약 75,000원
 제 3년도에 (441 DM) 약 88,000원
 제 4년도에 (504 DM) 약 100,000원을 18세까지 받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상기 금액보다 50~60 DM를 더 받고 있으며 또한 기숙사와 점심을 염가로 전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AUSBILDUNG VON ABITURIENTEN IN DER FARBERWERKE HOECHST AG



Ausbildungswesen der Farberwerke Hoechst AG

